

돈



“언제라도 쓸수 있어야”

금리 인상불구 장기예금 가입 외면 부동산 열풍 노린 대기성자금 뚜렷

■韓銀 최근 자금흐름 분석

콜금리 인상에 따른 거둬들인 시중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금융 시장에서 자금의 단기화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달 사이 금융기관에 만기 2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에는 예금이

증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잔액이 줄어든 반면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상품에는 자금이 크게 몰려 시중자금의 뚜렷한 단기화 현상을 드러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예취금기금의 상품 가운데 만기 2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의 잔액은 160조2천억원으로 2005년말 대비 4조3천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비해 만기 6개월미만 금융상품

잔액은 194조9천억원으로 2005년말 대비 11조3천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낙달동안 만기 6개월 미만 단기 금융상품 잔액은 15조7천억원이 급증한 데 반해 만기 2년 이상 상품의 잔액은 오히려 2조원이 감소했다.

2005년 연간 기준으로 6개월미만 상품의 잔액 증가규모는 32조8천억원으로 2년 이상 장기상품의 증가액 14조8

천억원을 배 이상 증가했으며 작년초에는 단기상품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세를 보였지만 작년후반들어서는 다시 단기상품이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5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5차례의 콜금리 인상 과정에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다소 주춤하는 듯 했으나 콜금리 인상기조가 일단락됐다는 관측이 자리잡은 작년 8월 이후부터 재차 단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자금의 단기화 현상은 근본적으로 중장기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급증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면 대금결제시점까지 단기상품에 일시 예치되는 경향이 있고 장기상품을 해지해 주택구입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단기유동성에는 기업의 운전자금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 쉽게 이동하는 단기 대기성 부동산 자금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어 있다.”

“단기유동성에는 기업의 운전자금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 쉽게 이동하는 단기 대기성 부동산 자금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어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단기유동성에는 기업의 운전자금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 쉽게 이동하는 단기 대기성 부동산 자금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어 있다.”

“단기유동성에는 기업의 운전자금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 쉽게 이동하는 단기 대기성 부동산 자금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어 있다.”

“단기유동성에는 기업의 운전자금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 쉽게 이동하는 단기 대기성 부동산 자금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어 있다.”

아동수당 지급계획 부작용 크다

KDI “재정부담·여성노동 참여 가로막아”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 제도가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적합한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윤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9일 ‘KDI 정책포럼’에 게재한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수급자격, 노동시장 참여 등의 조건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재정이 부담을 주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줄이며 이는 노동공급과 세수 감소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많은 출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돼 아동빈곤 등 새로운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부연구위원은 이에 노동력 부족 해결에 필요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출산 친화적 세제를 시행하는 방법 등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하는 양육보조금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고 노동공급 증

가에 따른 소득세수 증가는 보조금 등 재정비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양육보조금을 저소득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수혜 계층을 넓힐 계획이지만 이에 앞서 노동시장 참여 등 보조금의 수급조건을 감안받고 소득액이 클수록 혜택이 커져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출산친화적 세제는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이 근로소득세를 줄여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휴직제도의 경우 우리나라 제도를 바탕으로 임금의 20%를 제공 하는 2년간의 출산·육아 휴직제도를 시행한다고 가정할 결과, 노동시장 참여율을 끌어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LG전자 부스 찾은 빌게이츠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2007 CES'의 LG전자 부스를 방문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이 LG전자 박태수 책임연구원으로부터 3차원 기술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연합뉴스

생보사 ‘전용 암보험’ 10%뿐

10개중 9개는 구색맞추기용...소비자 선택권 저해

암보험 상품 가운데 전용보험은 1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40여개 상품은 모두 특약이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이 암 발생률 증가로 보험금 지급부담이 커져서 전용보험 판매를 잇따라 중지하고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 붙은 특약이란 암보험을 판매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생보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암보험 판매현황’에 따르면 현재 생보사들이 팔고있는 암 전용보험은 17종류, 암 특약보험은 144종류이다.

그러나 LIG생명 및 금호생명, 동양생명의 전용보험은 판매채널별로 중복계산됐기 때문에 실제 판매되는 전용보험은 14종류이다.

전체 암보험(158종류) 가운데 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용보험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는 생보사들이 2005 회계연도에 암보험에서 3천768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수익이 악화되자 암 전용보험의 신규 판매를 잇따라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과 교보, 대한 등 대형 3사는 암전용보험 판매를 모두 중단한 상태다. 생보사들은 전용보험의 보장금액이 특약보다 3~5배 많기 때문에 암 환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급부담이 크고, 정부의 암환자 지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 암전용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전용보험 판매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암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약으로 암보험에 가입하려면 종신보험 등 주보험을 함께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반면 암에 대한 보장한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 “보험사가 기본적으로 민영업체이지만 손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상품 자체를 없애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업 직원채용 우대기준 뭉개? 신입 - 공모전 입상자 경력 - 영어 가능한자

기업들은 직원채용시 신입 직원의 경우 ‘공모전 입상자’를, 경력직을 뽑을 때는 ‘영어 가능자’를 가장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2005-2006년 자사에 등록된 채용공고 171만건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동안 1개 이상 우대조건을 내건 채용공고는 30.9%로 2005년 24.4%에서 6.5%p 증가했다.

신입직 채용공고 중에는 32.5%, 경력직 채용공고 중에는 28.5%가 특정 우대조건을 제시했다.

신입 채용시 우대조건(복수응답)으로는 ‘공모전 입상자’가 28.2%로 가장 많았고 ‘영어 가능자’ 26.4%, 여성 17.9%, 일어가능자 11.0%, 국가유공자 10.9%, 중국어가능자 6.8%, 해외연수자 4.8% 등의 순이었다. 경력직 채용의 경우 영어가능자(36.5%)를 우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모전 입상자(25.8%), 여성(14.7%), 일어가능자(12.1%), 국가유공자(9.9%), 중국어가능자(9.6%), 해외연수자(7.0%), 학점우수자(4.6%) 등이 뒤를 이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신입의 경우 실무와 연관된 공모전 경험이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반면 실무경력이 있는 경력직 채용시에는 기업들이 언어능력을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부실 판매로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보험 설계사는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설계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을 자주 일으키거나 계약 유지율이 낮은 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재교육을 시키고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판매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이 상품 설명서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사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본정의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민원 많은 보험설계사 ‘퇴출’

앞으로 부실 판매로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보험 설계사는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설계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을 자주 일으키거나 계약 유지율이 낮은 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재교육을 시키고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판매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이 상품 설명서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사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본정의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재용 상무, 전무로 승진할 것” 삼성 이견회 회장 가능성 시사

이견회 삼성그룹 회장이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임박한 올해 인사에서 승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9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차라리 삼성인상’ 시상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상무의 승진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주 중으로 예상되는 그룹 정기 인사를 통해 이 상무가 전무로 승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관계자는 그러나 소유주 자녀가 몇단계 건너 뛰어 승진한 다른 그룹의 사례처럼 이 상무가 부사장 또는 그 이상 직급으로 승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삼성의 전통이나 분위를 감안할 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인사 시기와 폭에 대한 질문에는 “인사를 하기는 할 것”이라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국경제 전망 등 다른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재용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은 “올해는 인사가 조금 늦어질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검토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하자많은 업체에 입찰 불이익 준다 住公 입찰 환류시스템 도입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건축 공사의 하자 결과를 향후 공사의 입찰심사때 반영하는 ‘입찰 환류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주공은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 이후 낙찰가가 예정가의 70%에 머물면서 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주공은 아파트의 준공시점에 맞춰 하자를 점검해 이 결과를 다른 공사의 PQ심사(사전적격성심사)때 반영, 하자발생이 많았던 업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그린벨트내 국민임대단지 20층이상 아파트 건축 허용

충고 제한 변경에 따라 올해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지어지는 국민임대단지에도 20층 이상의 동이 들어 설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고 층수 제한은 단지 않았지만 용적률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중앙에 위치하는 동은 20-22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남양주 별내지구 포함해 이미 실시계획 승인이 난 단지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을 변경해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작년 11·15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도시 인접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을 늘리기 위해 6개 시도지역 아니라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28개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새물W&P	생산 및 운전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1	062-973-9767
KBSJOB	광주 금호생명 대표전화 상담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1/11	02-518-3250
명광시무기(주)	컴퓨터 OA(신도리코) A/S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2	062-232-8044
☎마트엔비트	미케팅 기획 및 편집디자인 모집	초대졸/경력1년	1600~1800	01/13	062-945-5003
일시스템(주)	JAVA/JSP/NET/시스템엔지니어(SEI)/DBA 사원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1/15	062-384-1161
☎Carriers광주전남지사	[경력직/영업직] 사원 채용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1/15	062-374-9454
☎광신종합건설	[본사근무]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직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1/15	062-365-7171
☎스마트정보	영업 관리 및 경리/회계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5	062-350-8500
광직업전문학교	정규직 교사채용 공고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7	062-529-3000
삼성화학(주)	품질보증부 대리급 채용공고	초대졸/경력1년	1800~2000	01/20	062-951-8001
광주인텔(주)	납품관리 경력 및 신입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0	062-944-0111
☎컴백아시아	2007년 상반기 정규직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0	070-7018-0077
한국게임사관학교	제2기 게임서비스 운영과정 교육생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0	062-350-2446
☎가나에드컴	일러스트(필수) 또는 코렐가능자 디자이너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20	062-222-845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